

새로 나온 詩集

웃을 벗는 슬픔

박상돈 외 지음

“지방문학시대의 독특한 양상이나 조류를 형성하기보다는 비제도권에서의 독자들과 문학의 모습 하나를 더불어 포용하고자” 결성된 ‘서정3세대’ 동인집. 박상돈, 이종대, 임준규, 장영옥, 노영미 등 젊은 시인들의 시 66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개인적·사회적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모습들이 다양한 소재와 형식을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책나무 / B6신 / 124면 / 2500원

그녀가 먼저 울었다

한만수 지음

현재 제주도에서 시작활동을 펴고 있는 시인의 신작시집. ‘바다’를 배경으로 ‘바람’, ‘역새풀’ 등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자유로운 방랑벽을 드러내면서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시키려는 ‘서른 중반의 사내’의 ‘몸부림’을 리얼하게 전달하고 있다. 총 72편의 시편들이 3부로 나뉘어, 시인 김강태씨의 해설과 함께 실려있다.

풍경 / B6신 / 128면 / 2500원

햇살도 저 群舞 앞에서는

경규희 지음

85년 「현대시조」 추천완료로 데뷔한 시조시인의 두번째 시조집. “이 시대 이 사회와 직결된 음성이란 점에서, 그러한 소리의 질이 질타를 섞은 고발성을 띠면서 일련의 비판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편들이 사설시조의 형식으로 압축되어 있는 1부, 자연을 매개로 서정을 노래한 2부, 6.25의 상흔을 소재로 한 3부로 구성되어 있다.

白象 / B6신 / 116면 / 2200원

가슴을 적시는 그리움으로

윤채환 지음

65년 「문학춘추」로 데뷔, 계간 종합문학회 「우리문학」을 주도하고 있는 시인의 제5시집. ‘사랑풀이’ 연작 13편을 비롯한 서정적戀詩들과 동시·禪詩 등 다양한 시풍을 보여주는 65편의 작품들이 5부로 나뉘어 실려 있는데, 우회하지 않고 자신의 서정만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시어와 기법이 특징.

우리문화사 / B6신 / 136면 / 2000원

月令歌 쑥대머리

柳岸津 지음

서울대 아동학과 교수이자, 65년 박목월의 추천으로 「現代文學」을 통해 등단한 이래 활발한 작품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시인의 제8시집. 月令歌 형식의 시편들을 ‘현대세시 연가’ ‘현대세시 풍속가’ ‘전통세시 풍속연가’ ‘시조로 쓴 월령연가’ ‘사계절가’ ‘내 가슴속 여기는’ 등의 6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시인의 실험의식을 엿볼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이 주목을 끌고 있다.

文學과思想社 / B6신 / 162면 / 2000원

한 벌 옷에 바리때 하나

金達鎭 지음

29년 「文藝公論」으로 데뷔, 60년대 이후 은둔생활을 하면서 불경국역사업과 「唐詩全集」 「한국漢詩」 등의 譯解작업에 몰두했던 月下의 禪시집. 70년대 후반에서 89년 작고하기 전까지의 작품 38편을 3부로 나누어 묶고, 4부로 고인이 평소 즐기던 옛선사들을 첨가, 수록하고 있다. 스스로를 無化시키는 수도자적 초월의식이 전편에 흐르면서 “사회적·인간적 욕망의 극소화와 생략의 극대화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시인 조정권씨의 평.

民音社 / B6신 / 110면 / 2500원

이상한 섬

김영희 지음

88년 「시문학」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한 시인의 첫시집. 총 64편의 시들을 4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불교적 禪味를 느낄 수 있는 시편들과 함께 감각적 이미지 중심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서정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세속적 삶의 찌꺼기나 물신시대에 오염된 자아, 그리고 세속적 번뇌를 행귀내는” 구도적 삶의 자세가 실존적 삶의 현장으로 연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평론가 박진환씨의 평.

山房 / B6신 / 124면 / 2500원

그 여름의 끝

李晟馥 지음

77년 「文學과 知性」을 통해 등단, 「뎡구는 들은 언제 잠깨는가」 「남해금산」을 발표하면서 김수영문학상,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던 시인의 세번째 시집.

‘당신’이라는 대상에 대한 연애시의 어법으

로 ‘세상’과 ‘삶’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독특한 서정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얼룩이 지고 비틀려 /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다”는 ‘느낌’에서부터 시작하여 슬픔과 고통을 동반한 ‘길 위에서 사랑’을 통해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다”는 인식에 이르는 시인의 여정이 108편의 시 속에 담겨 있다.

文學과知性社 / B6신 / 134면 / 2500원

학교는 오늘도 안녕하다. 2

배상환 지음

현직 음악교사이자 작곡가, 음악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이 88년 출간한 동명의 시집에 이어 발표한 제2시집. 평범한 삶의 주변사를 소재로 평이한 일상화법을 사용함으로써 친화력을 얻고 있는 동시에, 역설과 위트에 의한 날카로운 현실풍자가 돋보인다. 문학평론가 이운택씨는 해설에서 현실해체, 뒤집기를 시인의 특징으로 지적하면서 ‘일상시’의 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나남 / B6신 / 114면 / 2000원

세상의 길가에 나무가 되어

박남준 지음

84년 「詩人」誌를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 「南民詩」 동인과 전북민족문학인협의회 사무국장을 거치면서 ‘운동으로서의 문학’을 표방해온 시인의 첫시집. 80년대의 정치·사회상을 기다림과 절망, 실존적 세계에 대한 자기대응, 체념과 반성, 달관과 깨달음의 시적 태도로 수용하면서 ‘민중시’의 보기 드문 서정성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黃土 / B6신 / 160면 / 2500원

비디오 / 천국

河在鳳 지음

8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시운동’ 동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시인의, 첫시집 「안개와 불」에 이은 제2시집. 현대 산업사회의 대표적 산물인 ‘비디오’를 시인의 ‘눈’으로 상징하고 그것을 통해 역으로 시인 자신의 개인적 삶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참담한 우리의 일상을 숨김없이 드러”냄과 동시에 ‘일상적 초월’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평론가 김주연씨의 해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文學과知性社 / B6신 / 112면 / 2500원

폭우와 어둠 저 너머 시

한택수 지음

85년 「심상」으로 데뷔, 현재 서울경제신문 편집부에 근무하고 있는 시인의 첫시집.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삶의 질곡들을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는 시편들이 3부로 나뉘어 있는데, 시인 자신을 비롯해서 어머니와 딸과 아내를 삶의 구성원으로, 강릉과 서울을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유년기의 서정과 성년기의 서정을 대비하는 한편, ‘白石의 마을’ 연작을 통해 시와 삶의 공동적 지평을 획득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文學과知性社 / B6신 / 100면 / 2500원

시간의 샘플

이수익 외 지음

우리시단의 중견시인으로 꾸준한 작품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수익, 이성선, 조정권, 최동호 4인의 합동시집. 87년 「샘물 속에 바다가」에 이은 두번째 시집으로 기간 시집에 들어가지 않은 최근작 15편씩을 묶었다. “물신주의나 현실주의라는 유행적 흐름에 대하여 서정시의 정신주의적 지향성을 확립해 보고자 하는” 시인들의 시세계가 특히 자연을 소재로 펼쳐져 있다.

나남 / B5신 / 120면 / 2000원

詩, 내 젊음의 초상

이철영 지음

「자유공간」 동인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시인의 첫시집.

젊은 날의 자화상을 그린 시 61편이 3부로 나뉘어 실려있는데, 제1부 ‘트리폴리 수첩’에서는 시인의 리비아 체류 당시 느꼈던 이국적 풍경을, 제2부 ‘슬픔은 나의 힘’에서는 평이한 일상에서의 절망이 건강한 삶의 힘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제3부 ‘낙타일기’에서는 20대의 가장 예민한 애정의 대상에 서서히 다가가는 행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밝은책 / B6신 / 112면 / 2000원

종이새가 된 편지

이준연 지음 / 김복태 그림

현암사 / A5신 / 216면 / 2500원

「인형이 가져온 편지」가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래 30년 동안 동화만을 써온 '동화 할아버지'의 50번째 창작 동화집.

창작동화를 엄선하여 펴내고 있는 '현암아동문고'의 8번째권인 이 책은 할머니를 따라 송월스님이 계신 도솔암으로 온 돌이가 산길 유채밭에 버려진 불쌍한 병신 장아지를 데려다 부처님께 소원을 빌면서 같이 탑돌이를 한다는 얘기가, '동' 국민학교에 다니다 '남'국민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산동네 오두막집 귀퉁이 방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순애가 학구제 변경으로 전학은 뒤 적응해 가는 이야기 등 작가의 뛰어난 감수성과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탐정클럽

이영준 지음

대교출판 / A5신 / 206면 / 2500원

1967년 한국 아동극협회 주최 동극본 현상모집에서 「토끼들」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동화작가가 쓴 꼬마탐정들의 신나는 모험이야기를 실은 장편동화.

학다리, 컴퓨터, 홈런, 발바리, 노마, 까치, 이 여섯명의 어린이들이 탐정클럽 본부에 모여 공부도 하면서 탐정활동을 한다.

추리소설을 많이 읽은 아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 여자아이, 몸이 날래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힘과 용기와 지혜를 함께 모아 탐정활동을 해 나간다는 줄거리.

「상록수」로 유명한 심훈이 살던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마을을 무대로 펼쳐지는 어린이들의 탐정놀이가 흥미롭다.

봉이 김선달

이명수 엮음

금유출판사 / A5신 / 222면 / 2000원

「대동강물을 팔아 먹은」 일로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 봉이 김선달의 기행 중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교훈적인 내용만을 골라 간추려 엮은 책.

평양의 '선교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공부를 잘하고, 무척이나 쾌활하고 재주가 뛰어났던 봉이 김선달이지만 서북출신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로 벼슬에 오르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워낙 영특한 김선달은 양심없는 닭장수를 혼내주는가 하면, 꿩을 주고 벼슬을 사는 등 갖가지 기행을 펼치며 살아간다. '금강산 산신령이 된 거지' '못된 양반 길들이기' 등 19편의 재밌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천국의 우산

손요한 지음

민홍당 / A5신 / 255면 / 3000원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주제로 한 종교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

「다시 살으리」 「이 세상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이은 작품으로 흔치 않은 소재를 흥미롭게 이끌어가고 있다. 착한 인간들에게 하느님의 선물을 전달하는 소년의 활약상이 펼쳐져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자신의 삶에 반성할 시간을 갖게끔 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어린이 납치 사건이 발생한다. 고교 교사의 다섯살 박이 아들이 동무들과 함께 놀고 있다가 괴청년들에 의해 유괴당하게 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어 교훈을 얻을 만한 책이다.



섬섬이의 희망사항

소중애 외 지음

문공사 / A5신 / 192면 / 2500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꿈'을 소재로 동화작가인 선생님들과 학부모, 어린이들이 쓴 29편의 맑고 깨끗한 상상의 글을 한데 모은 책.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 유명한 야구선수, 노벨상 수상자, 개성있는 연기자, 신부님, 중매쟁이, 바이올리니스트 등 가지각색의 끝없는 희망의 나라가 한껏 펼쳐져 있다.

버스가 타고 싶어 버스운전사가 꿈이었던 시골아이들의 궁핍한 꿈을 회상하며 가슴아파하는 선생님의 글과 두 딸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엄마의 바람이 담긴 글을 비롯해, 어린이들의 꿈들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어 요즘 어린이들의 '희망사항'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다.

그리스 신화

신지식 엮음

대원사 / A5신 / 222면 / 2500원

「권하는 책」 시리즈의 하나로 유경환 시인이 추천한 다섯권 중의 한권.

「감이 익을 무렵」 등의 작품집으로, '소천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가가 그리스 신화를 어린이들이 읽기 쉽도록 고쳐 엮은 책이다.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궁전에 사는 신들의 이야기와 죄악과 질병과 온갖 악이 담겨진 상징을 열었던 판도라, 거미로 변한 아라크네, 페르세우스의 신기한 모험, 헤라의 질투심으로 태어날 때 운명이 뒤바뀌어 고생하게 되는 헤라클레스의 운명 등을 이해가 잘 되도록 엮었다.

“문학, 미술, 음악 등 예술과 여러 분야의 학문이 숨어있는 그리스 신화를 모르면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작가의 말.

호랑나비의 가출

전상기 지음

상서각 / A5신 / 206면 / 2500원

평화스러운 산속 마을에 살고 있는 산토끼 가족이 겪는 겨울이야기를 다룬 「쫓고 어두운 겨울 이야기」 등 14편의 단편동화를 모은 창작동화집.

강원도 홍천군 두촌중학교 선생님이 작가는 산짐승과 시골에 사는 어린이들의 순박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통해 고운 마음씨와 정서를 갖도록 한다.

꽃동네의 '나막'이라는 꼬마나비가 숙제 타령만 하는 엄마와 심부름만 시키는 고모 그리고 핀잔만 주고 쥐어박기가 일쑤인 형과 누나들 때문에 아빠에게 큰고모의 심부름을 간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서는데...

여기에 실린 동화들은 한결같이 산골마을의 아이들이나 산토끼, 까치, 호랑나비 등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게 특징이다.

저승사자 야달타 (전·후)

김주현 지음 / 민미정 그림

관문 / A5신 / 230,221면 / 각 2500원

「꼬마 주리고」의 작가로 이미 어린이 독자들에게 친숙한 김주현의 새 장편동화.

천국엔 우리가 하느님이니 염라대왕으로 부르는 천왕님이 계시는데, 인간의 모습이 아닌 빛덩어리로 자옥한 안개속에서 홀로 빛을 받으면서 어떨 때는 십자 모양으로, 또 어떨 때는 별 모양으로 항상 변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많지만 특히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나누어 심판하시는데, 어느날 그 중요한 일에 사고가 생긴다.

저승사자 야달타와 수호천사 갈차니, 널차니, 달차니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후편에 걸쳐 끝없이 펼쳐진다.

책 말미에는 이 책에 나오는 한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